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1001st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9년 2월 2일(월)

연대 활동

민주노총 제45차 정기대의원대회 열려

2009년 사업계획 · 예산 등 처리



1월 21일(수) 오후 2시 '민주노총 제45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서울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이석행 위원장이 구속돼 갈려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공안탄압을 심판하는 투쟁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 단사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참가했으며, 6개의 안전 중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 결산승인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규약개정 등 3개 안전 처리후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유회됐다.

이날 민주노총 진영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을 통한 공포정치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 · 단결원력으로 조합원들에게 힘차고 자랑스러운 대의원대회를 치렀다는 소식을 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범조직상은 IT연맹 굿모닝에프노동조합이, 모범조합원 상은 IT연맹 한국정보사회진흥원노동조합의 김종표 조합원이 각각 수상했다.

KT그룹노조협의회 개최
 "변화에 맞서 노동조합도 공동대응할 것"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그룹노조협의회)는 1월 15일(목) 11시 KT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09년 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김구현 KT노동조합 위원장을 신임 그룹노조협의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룹노조 대표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구현 의장은 지재식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의장을 맡아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김구현 의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KT그룹노조협의회 활동 경험이 부족한 만큼 다른 위원장들이 많이 도와주고 부족한 점은 채워달라"고 밝혔다. 또한 "KT그룹의 본격적인 KT가 힘들다보니 그룹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나가자"고 덧붙였다.

김구현 의장은 대표자들의 추천과 지지를 받은 장인데 KT노동조합 조직처장 서리를 신임 KT그룹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KT그룹 전체가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도 그룹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동임단협을 비롯한 공동행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논의도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그룹노조 전체 간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 간부들의 단합을 높이고 그룹연애에 대한 일치성을 높일 계획이다.

IT연맹 1차 중집위 개최
 "2009년은 IT연맹 비약적 도약의 해" 선언

이후 오후 1시에는 동일장소에서 IT연맹(위원장 박흥식) 2009년 1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다. 중앙집행위는 회의의 통해 2009년 (가)예산안과 사업계획 초안 등을 심의, 토의했다. 중앙집행위는 2009년을 'IT연맹의 비약적 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연맹 지도력 강화 ▲조직력 배가 ▲산별 로드맵 완성 등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하는 사업계획초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IT연맹은 IT정책연구소와 정책업무 협정을 맺고 연맹의 일상정책활동 및 통신정책, 산별전환 등 주요 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KT노동조합 제10대 김구현 위원장 취임

"조합원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10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노동조합은 1월 6일(화) 오후 1시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및 위원장이 · 취임식을 통해 10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지방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지부/분회장 등 노동조합 간부, 자회사 노동조합위원장, 서정수 사장직무대행 등 총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화공연 후 시작된 본 행사에서 공로패를 전달 받은 지재식 前위원장은 이인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하나된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며 10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어 김구현 10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3만 조합원과 함께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큰 역할을 맡겨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100년 통신 역사를 이끌어온 KT는 현재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사측이 일련의 사업전개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 없이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을 강행한다면 투쟁을 불사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선언했다.

IT연맹 박흥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경쟁이 어려워수록 저소득층과 노동자계층의 타격이 크다"고 우려하며 "대내외 환경은 최악이지만 태연의 기적처럼 KT노동조합, 그룹노동조합협의회, IT연맹이 모두 합심하여 사람의 힘으로 위기에서 희망을 찾자"고 전했다.

서정수 사장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노사가 협력한다면 위기극복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한 뒤, "새로운 10대 집행부가 KT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전달해 주고 함께 노력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축하했다.

김구현 위원장 창립기념 및 취임사

"안으로는 조합원의 신뢰를, 밖으로는 국민적 지지받는 강력한 노동조합 건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3만 조합원과 함께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이래 절망감에 빠져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간절한 요구와 희망을 모아 무거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노동가치가 존중 받는 노동조합을 구축하려는 엄중한 요구를 받들어 큰 역할을 맡겨주신 조합원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창립 27주년과 위원장이 ·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조합간부 여러분, 자회사 노동조합위원장과 서정수 사장직무대행 그 외 여러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9대 집행부를 이끌어오신 지재식 前위원장께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지만 유례없는 세계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00년 통신 역사를 이끌어온 KT는 현재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지는 인터넷전화시장에서 기존 2천만 유선전화고객을 지켜야 하며, 본격적인 IPTV시장을 통해 통신 · 방송 · 서비스를 아우르는 엔터테인먼트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와이브로사업 등 이동전화시장에 뛰어들면서 KTF와의 합병도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신성장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양측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측이 일련의 사업전개과정에서 과거의 구태를 답습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대화 없이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 등을 강행한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을 불사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큰 소용돌이 속에서 10대 집행부는 3만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지켜야 하는 강한 소명을 안고 출범합니다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신자유주의정책의 결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황폐해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고용이 유연한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와 학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파산과 기업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뒤집어써야 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대 집행부는 강력한 내부혁신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안으로는 조합원의 신뢰를 받고, 밖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 3년이 과거 어느 집행부 임기보다 쉽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00km를 돌며 3만 조합원의 염원을 가슴에 새겼던 선거운동기간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강력한 쇄신을 통해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 중심의 사업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각 실처장 등에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조직운영의 방식으로 바꾸어 '조합간부 모두가 KT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3만 조합원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집행부는 공부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조합간부가 현장을 모르고 회사사정에 어두워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을 위해 배우며 공부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집행부, 여성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집행부로 거듭날 것입니다.

위기에서 희망으로! 희망의 KT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스스로를 활짝 열어 짓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회변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의 3년이 KT노동조합의 역사에서 새로운 희망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KT노동조합의 희망찬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조합간부 여러분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즐겁게 동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6일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



▲ 김구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선언했다.

끝으로 10대 집행부는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서비스하는 집행부 △소통하는 집행부 △공부하는 집행부 △연대하는 집행부 △투명한 집행부 등 5대 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중앙상무집행위원 17명 인선

중앙본부 2실2처 구축 통해 본격적으로 임기 시작

김구현 위원장은 1월 5일(월)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09년 사무식을 통해 총 17명의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오늘부터 '현장과 함께하는' 10대 집행부의 임기가 시작됐다"고 선언하며 "자를 비롯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모두가 내부결속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해 반복이 갖는 기축년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KT노동조합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며 "조합간부 모두가 모자라는 점은 서로 채워가며 힘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만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로 덧붙였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무처장 서리	윤오원
■ 사무국장	김대현
■ 재정 · 법규국장	박경윤
■ 복지국장	한호섭
■ 정책기획실장 서리	차원규
■ 정책 1국장	전형집
■ 정책 2국장	김종욱
■ 정책 3국장	홍정성
■ 조직처장 서리	장인태
■ 조직 1국장	강인석
■ 조직 2국장	최신철
■ 조직 3 · 산업안전국장	김종규
■ 대외협력 · 정책국장	김배정
■ 여성국장	곽갑숙
■ 교육선전실장 서리	허 진
■ 교육국장	김근배
■ 편집국장	김민수

2009년 향상된 복지제도

- **급식통근비 인상**
 - 월 2만만 원 → 월 25만 원
 -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단체보험 가입 확대**
 -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우자까지 시행
-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자율 인하**
 - 연 3.8% → 연 3%
 - 적용시기 : 2009년 1월 1일부터
- 1년 단위 소멸성으로 해마다 재계약
 - 적용시기 : 2008년 12월 31일부터

유아교육보조비 지급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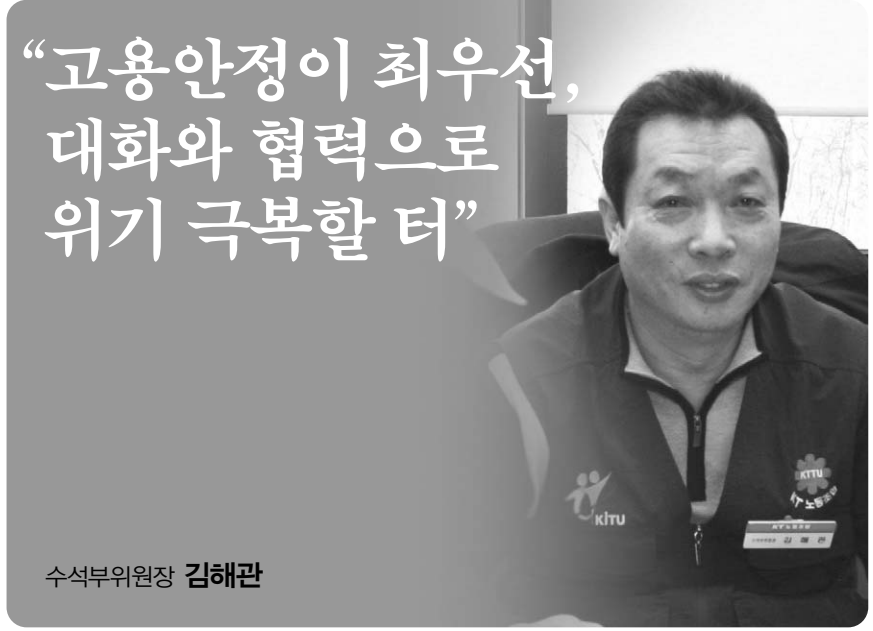
- 2009년 유아교육보조비 지급대상 : 연령에 상관없이 2010년 3월에 초등학교 입학예정 자녀를 둔 사원
- 위 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원께서는 2009년 1~6월말까지 기관담당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소급지급 및 2009년 12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 해당자녀가 인사시스템에 '비대상' 자녀로 구분되어있을 경우 **지급신청방법** : 사원본인이 직접 자녀이름 클릭하여 등록처리 후 증빙서류와 함께 출력되는 신청서를 함께 기관담당에 제출
 - 해당자녀가 인사시스템에 '대상' 자녀로 구분되어있을 경우 **지급신청방법** : 증빙서류만 기관담당에 제출
 - **증빙서류** : 재원증명서(또는 2009년 납입영수증) + 주민등록등본(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2009년 6월말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급없이 신청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노동조합 10대 집행부에 듣는다

노동조합은 1월 5일 사무식과 함께 17명의 중앙사무집행위원을 인선했다. 중앙본부는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기조로 출범한 만큼 현장을 잘 이해하고 조합간부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진, 열성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10대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조직개편과 KTF합병이 발표되는 중에 중앙본부는 비상체제를 방불케 하며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조합간부들은 막부가 내식 투쟁구호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닿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미련과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른 지금, 김해관 수석부위원장과 2실 2차장 및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의 남다른 각오를 들어본다.



제10대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은 노조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동시에 다독(多讀)하고 공부하고 후배들을 독려하는 인물로 유명하다.

1989년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입사한 이래 92, 95, 98년 대구 영양전화국 지부장을 거쳐 대구지방본부 교육홍보국장, 6대 중앙본부 사업대책국장, 교육선전실장, 8~9대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92년도부터 한국통신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중앙위원 대의원을 거치는 동안 자녀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아내의 남편격적인 주름과 함께 자부심이 되었다.

▲ 노동조합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 문제가 노동조합은 물론, 조합원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감축의 전 단계라거나 분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직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임 사장이 적극 나서겠지만,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매출정체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저지만 해서는 고용안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직개편의 큰 틀은 수용하되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분사나 인력구조조정 등은 철저히 막을 것입니다.

▲ 10대 집행부의 조합간부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10대 집행부는 서비스하는 집행부, 소통하는 집행부, 공부하는 집행부, 연대하는 집행부, 투명한 집행부를 5대 상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서비스하는 집행부는 조합원을 섬기는 집행부라는 뜻입니다. 조합원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항상 최우선에 두고 활동할 것입니다.

둘째, 소통하는 집행부입니다. 소통 없이는 어떤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발휘할 수 없습니다. 10대 집행부는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은 물론, 노동조합 조직 내부의 소통에 많은 신경을 쓸 것입니다.

셋째, 공부하는 집행부를 만들 것입니다. 서비스하는 집행부와 소통하는 집행부가 조합간부의 자제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집행부는 조합활동의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지렛대입니다. 대외와 명분만으로 활동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10대 집행부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영역을 개척해 합리적인 정책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하는 집행부와 투명한 집행부를 구축하겠습니다. KT노동조합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소외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연대 활동을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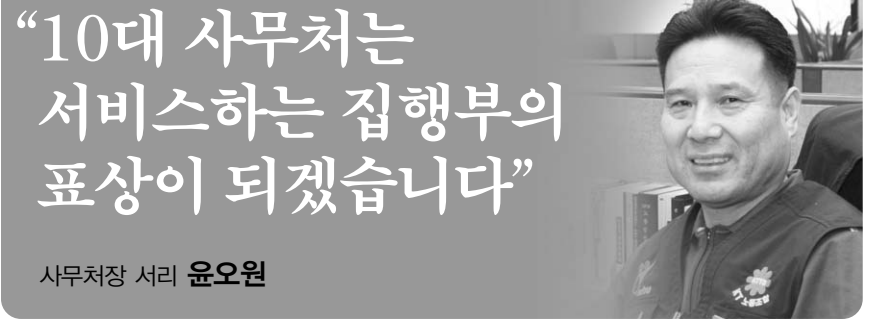
그리고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한치의 부정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합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조합원의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의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투쟁만 부르짖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조는 노조다워야 하고, 경영진은 경영진다워야 합니다. 노조는 경영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고,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대화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노사관계의 특성상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최대한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고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약사항이었던 통신업계 평균임금 인상률만큼은 조합원들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최선을 다해 쟁취하겠습니다.

2009년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실·차장 및 전국 조합간부들과 뜻을 모아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애정어린 지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런 눈빛, 단호한 어투. 이 단 두 마디로 윤희원 사무처장 서리를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어영부영 타협하는 인물이 아님은 분명하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조직개편이라는 큰 벽에 부딪쳐 입술은 터졌고 점심은 거르기 일쑤다.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회사와 조율하고 다그쳐 얻어내는 것이 그의 몫이다.

윤희원 사무처장 서리는 7, 8대 총청권고객센터 지부장, 9대 본사지방본부 사무국장을 거쳤다. 조합활동에 늦게 뛰어들어 길다란 길고 짧은 10년을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지만, 강직한 성격 덕에 지부조합원들로부터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아 왔다.

▲ 중앙본부 사무처의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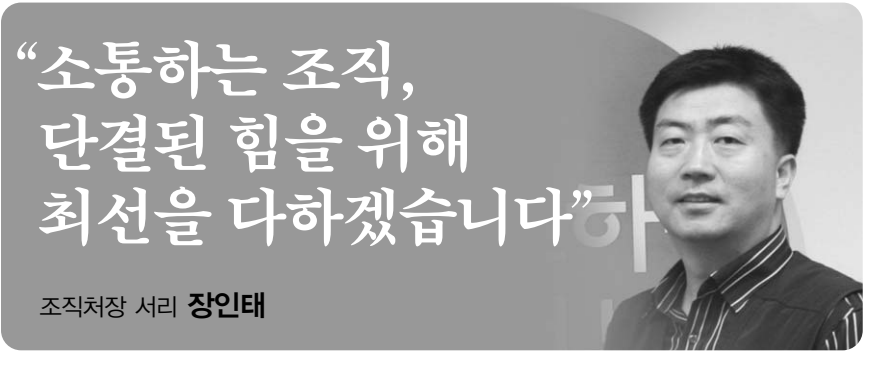
중앙본부 사무처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전화가 쏟아져 오고 해결해야 하는 일 투성이입니다. 아직은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인데 간혹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체 조합원을 생각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잣대를 분명히 세워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는 노동조합의 사무, 재정, 조합원의 복지후생, 벌금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노동조합 전체의 사무를 책임지고 KT조합원 모두의 자선인 조합비를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사무처 몫입니다. 유아교육보조비에서부터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등 조합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면 그 무엇이든 회사와 협의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대 중앙본부 사무처만의 방향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무처를 집행부 5대 상 중 첫 번째인 '서비스하는 집행부'의 표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주체임을 바로 알고 조합원의 요구와 권리를 위한 봉사정신을 토대로 소상히 보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처 일은 단순히 현안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10대 집행부의 정책과 기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탄탄한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소명으로 가슴에 새기고 고용안정, 복지향상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힘이 솟는 의견이든, 답답한 마음의 표현이든 가감 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처의 올해 목표는 막혔던 기(氣)를 정성을 다해 풀듯, 노동조합 조직전체의 미흡한 소통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장인태 조직처장 서리는 투쟁의 선봉에 어울릴 듯한 무뎉뎉한 외모와 달리, 웬만해서는 큰소리 한 번 내는 일 없는 조용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다.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끈질기게 상대를 설득하는 모습에는 허를 내두를 정도의 인내심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뒷받침 해 주는 것은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속 깊고 넉넉한 인품이다.

그는 90년 무주전화국에 입사해 97년부터 6, 7대 지부장을 거쳐 8대 전북지방본부장의국장, 8~9대 중앙본부 정책국장 및 조직국장을 역임했다.

▲ 중앙본부 조직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입니까?

조직처는 말 그대로 조직운영 및 관리가 주된 업무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조직 내 소통의 부재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조합간부들이 선거를 통해 빠져라게 느꼈듯이 저 역시 조합원과의 소통, 조합간부간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조합원의 관심, 자부/분회장의 지지, 지방본부 간부들의 뒷심 없이는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소통과 단결 없이는 자칫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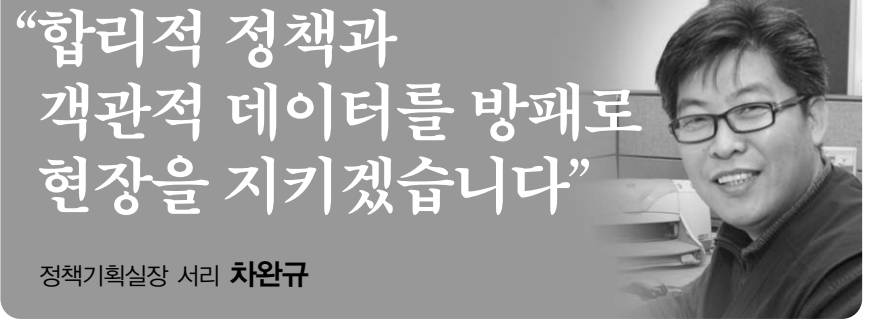
10대 조직처는 '소통과 승리할 수 있는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합원, 조합간부와 숨김없이 공유하고, 자주 부딪히고, 부지런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 10대 중앙본부 조직처를 맡은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오늘이 임기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루 종일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가끔은 '잘됐습니다.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속 시원히 건네지 못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은 아주 예민한 생명체와도 같아서 다루는 정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저는 먼저 말을 거는 조합간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는 조합간부가 되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단결의 힘을 보인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조합원, 조합간부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의 작은 의지에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아낌없이 나누고 아쉬움 없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서리는 논리적인 언변, 청년 같은 패기로 연설 잘하는 조합간부, 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물론 이 같은 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은 아니다. 퇴근을 마다하고 모포 한 장 뒤집어쓰고 자정을 넘기며 성명서를 쓰기도 했고, 서적을 뒤적이며 정책자료준비를 위해 밤을 새운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는 1990년 동작전화국에 입사한 이래 5, 6대 동작지부장, 7대 서울지방본부 교육국장, 2000년 114분사지지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본부 교육국장, 8~9대 중앙본부 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공공연맹, IT연맹, 민주노총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서리를 통해 10대 집행부 정책기획실의 비전을 들어본다.

▲ 중앙본부 정책기획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은 노동조합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주로 노동환경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통신정책의 흐름과 전망을 연구하며 기획합니다. 국내외 정세를 토대로 노동조합의 정책과 회사의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복지향상을 위해 해마다 단체교섭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정책기획실이 책상 앞에만 앉아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현장을 알아야 정책을 세울 수 있고, 현장의 정서를 알아야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기획실은 현장을 터전으로 여기는 '이동 정책실'을 운영하여 기본적인 노동가치를 지키고 현장과 호흡하는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 10대 중앙본부 정책기획실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널리 알려졌다고, 2009년은 KT를 둘러싼 대내외 정세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10대 집행부 정책기획실은 공부하는 집행부로서 'KT 살리기'라는 대승적 과제 속에 다양한 시각에서 안팎을 연구하여 미래를 대처할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당장 구조개편과 합병으로 불거질 조합원 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방안과 대안으로 조직안정화에 힘을 것입니다. 정책기획실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한 고용안정 쟁취가 아닌, 창의적인 제도전으로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펼칠 것입니다. 조합원, 조합간부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뵈겠습니다.



허진 교육선전실장 서리는 열정적인 조합간부이면서 동시에 노동교육 전문가, 글 잘 쓰는 조합간부로 유명하다. 그는 틈나는 대로 매체를 탐독하고 부지런히 국내외 관련 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한다. 때문에 중앙본부에서 생산되는 문장 중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드물 정도다.

그는 1997년 전국대의원을 시작으로 6대 경영대책국장, 8대 기획관리국장, 교육선전실장, 9대 대외협력국장, 전국IT산업연맹 교육선전실장을 맡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다.

▲ 중앙본부 교육선전실의 주요역할은 무엇입니까?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은 조합간부를 대상으로 중·장기 교육훈련 목표와 방침을 정하고 조합원, 조합간부, 언론을 대상으로 조합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성명서, 노보 등 노동조합의 각종 선전물을 생산하는 것도 교육선전실 몫입니다.

모든 역할이 고루 중요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환경은 날로 복잡해 지고 불투명한 미래는 조합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중 '꽃'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조합원의 참여와 조직력에서 나온다고 할 때,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선전실을 맡으신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올해 노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할 계획입니다. 딱딱한 구호, 결의만을 강조하는 투쟁식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교양, 사회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내용으로 조합간부들의 역량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KTTU 홈페이지를 웹2.0 방식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마음껏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정보로 매일 찾고 싶은 홈페이지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언론홍보를 활발히 진행할 것입니다. 옹크리고 앉아 '우리만 땀땀하면 된다' 식이 아니라 2만8천 조합원의 입장을 당당히 선전하여, 권리수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조합원, 조합간부 여러분께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조합 교육사업에 들뜬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반박하는 아이디어와 스텝없는 의견으로 홍보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제 10대
강북지방본부의
출발선에 서서**



강북지방본부위원장
김태호


“변화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라는 이정표로 10대 강북지방본부 위원장 임기를 시작한다.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유난히 춥고 을씨년스러운 내외의 변화 속에서 위기를 위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하는 10대 1차년도의 중요한 출발선에 섰다.

먼저, 희망주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불안해 하는 변화의 위기를, 고용안정 자체인 생존권의 희망을 조합원의 단결된 시너지로 결집하는 리더십으로 태어나야 한다.

또한 실천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많은 정책과 공약사항으로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했다. 비전과 대안의 정책을 제시하고 조합원과의 약속을 하나 하나 다듬어 실천할 때,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도약해야 하는 KT호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 원칙과 정체성을 가지고 조합원이 만족 할 때까지 변화하고 개혁하는 KT노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먼저 내가 변하고 조합간부가 앞장서서 실천하는 마음자세로 출발하는 10대의 청사진을 그려라! 소처럼 서두르지 않고, 느리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노동조합의 든든한 출발이 되자!

**모든 조합활동의
중심은 조합원
이어야 합니다**



강남지방본부위원장
이현광

존경하는 조합원, 조합간부 여러분! 10대 노동조합은 엄청난 과제와 역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현장권이 노동조합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과 내적으로는 신입사장 취입 이후 전개될 조직의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합간부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조합원의 뜻을 경계하여 받아들이고 우리 조합간부들이 나아가야 할 활동의 지침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강남지방본부 조합간부 여러분! 첫째, 모든 조합활동의 중심은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나를 선택해준 조합원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합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관리주의를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조합간부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당한 관리자들에게 대항해서 투쟁을 하는 지리이지 결코 조합원 위에 관리자처럼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원칙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와 지방본부, 중앙본부가 역할을 충실히 할 때 조합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조합원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조합원을 위하여 헌신하고 조합원의 아픔을 달래주는 조합간부로서 거듭나기를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서부지방본부위원장
문경노

2009년 기축년(己丑年) 소피의 해를 맞았습니다. 소는 번영과 부를 상징하며, 근면하고 끈기가 있는 동물로 가정의 안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조합원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동조합 건설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하고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서부지방본부는 인천마케팅단(법인사업단 포함), 서울남부마케팅단(법인사업단포함), 경기남부마케팅단(법인사업단 포함) 등 3개의 단과 강남네트워킹운용단의 조직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부본부 조합원에 대한 권익보호는 현 서부지방본부에서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KT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소속은 변경되더라도 조합원의 소속은 서부지방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평등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겠습니다. 10대 노동조합선거는 조합원의 진심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노동조합, 일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합원의 모든 뜻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하나 하나 해결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을 할 것이며,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상을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조합원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겨낼 수 있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가는 서부지방본부 가 될 것임을 약속 드림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합원과 함께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본부위원장
정윤모

사랑하는 부산지방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대 부산지방본부 위원장 정윤모입니다. 당당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출범식을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고용안정과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되새기며 새로운 3년을 조합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를 통해 느꼈던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애정 어린 관심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부산지방본부로 거듭 날 것을 약속합니다.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모든 역할을 매출증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조합도 조합원 여러분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을 하고 동참을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조합의 진심을 외면하고 총명한 대화 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아웃소싱, 복지제도 등을 감소 시킨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막아 낼 것입니다.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10대 집행부가 출범을 하게 되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본부는 노동조합의 한 축으로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주적인 모습으로 사측과 진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조합간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한발 앞서 헤아리겠습니다.

**2009년,
함께 결의하고
투쟁해 나갑시다**



대구지방본부위원장
김근주

존경하는 대구지방본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조합원들의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KT노동조합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쏟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통신산업은 그 어느 때 보다 급변하고 치열하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KT내부에 다가올 변화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KT와 KTF 합병은 단순히 기업간의 합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유무선의 융합과 이에 따른 네트워크,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올바른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간부들도 조합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일치된 행동을 보여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도래되더라도 함께 결의하고 함께 투쟁한다면 반드시 조합과 조합원들이 열망하는 최선의 선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선봉에 항상 제가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과 대화로
술선수범
하겠습니다**



본사지방본부위원장
김신

존경하는 본사지방본부 조합원 여러분! 중앙본부와 함께 희망을 드라이브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장을 누비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해가 바뀐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선거 유세기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분명히 느낀 것은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원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주 조합원을 찾아 뵈고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만이 노동조합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사지방본부 지부장 여러분!

우리 본사지방본부는 타 지방본부와는 달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지부와 KT의 주요 핵심업무를 모두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지방본부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존재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예전처럼 투쟁 일변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과 대화로서 술선수범하는 본사지방본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벨트는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은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본사지방본부 지부장님들은 이 최고의 상이 3년 후에는 헛되지 않고 환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전남지방본부위원장
임종대


조합원 여러분께 사장 취입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져 많이 어수선 합니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을 동지 여러분의 고충은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서도 대규모 인력감축의 전 단계라거나 분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에 확대 과정이고 이것이 사실인양 포장되기도 합니다. 선거과정에서도 명확히 밝혔듯이 분사나 인력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운명을 걸고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력 이동이 불가피하겠으나 이는 최대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거나 지지한다고 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개별 사안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입체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도 생명체와 같아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소통 그리고 신뢰 복원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사전에 조합원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열린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조합간부,
하나된 전복을
만들겠습니다**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양정우


존경하는 전북 조합원동지 여러분! 노동조합 제10대 전북지방본부위원장 양정우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긴 듯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조직개편, KTF와의 합병, 통방융합 등 2009년 KT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조합원의 혼란과 불안을 가장 큰 위기로 알고,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전북지방본부는 흔들림 없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 조합원 여러분으로부터 신뢰 받는 반패마이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지부순회를 강화해 조합원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검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조합간부상을 토대로 하나된 전복을 위해 뛰겠습니다. 조합간부 혼자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전북지방본부와 KT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근무환경 문제에서부터 굵직한 제도개선에 까지... 조합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전북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희망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합심하여 올해가 희망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충남지방본부위원장
조중오

자랑스런 충남지방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위기에서 희망을 건설하라는 조합원 여러분의 엄중한 요구로 제10대 충남지방본부는 굳은 각오 아래 힘차게 출범하며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터에 대한 애정과 주인 의식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를 지키고 가꾸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발판 삼아 더욱 내실있고 더욱 발전하는 충남지방본부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충남지방본부는 조합원에게 내건 모든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현안과 우려와 걱정을 모두 단번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었지만 우리모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시다. 충남지방본부는 오로지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며, 조합원 여러분이 바라는 희망찬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선봉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물러섬도 없이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노동조합으로
만들어 갈 것**



충북지방본부위원장
정지국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충북지방본부위원장으로 당선된 정지국입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충북지방본부가 조합원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 일하는 조합간부의 상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일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KT가 미래를 향한 발 한 발을 내딛을 때 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조합원들의 가슴속에 자리잡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위원장이 아니라 가려운 곳을 긁어 주고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친구같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북의 전 조합원과 간부들이 노와 사의 구분을 버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조합원 여러분들이 KT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저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은 조합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가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달을 올립니다**



강원지방본부위원장
심우승

강원지방본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가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힘차게 밝았습니다. 제 10대 KT 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도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제 막 그 달을 올렸습니다.

지난 위원장 선거에서 보내주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는 앞으로 강원지방본부의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범한 우리 강원지방본부는 조합원동지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존중할 것이며, 조합원의 권익은 물론 황폐해져 가는 현장의 분위기를 신명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고통을 항상 함께 하며,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더 새롭고 진화하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동지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멀어지는 노동조합은 그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합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지적하여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희망 찬 마음가짐으로 KT와 노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고통과 절망을
희망의 초석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주지방본부위원장
고홍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선거를 통해 동지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동지들의 모습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합원동지 여러분! KT는 이석재 사장의 취입으로 주인의식, 모든 분야혁신, 신상필벌 원칙, 시장강화, 효율과 생산성향상 등으로 All new KT로 가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성장이 멈추어지는 우리의 주력시장에 대한 엄격한 진단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위한 재도약의 틀을 만들어 내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그 속에서 조합원의 고용이 흔들리고, 개인 간의 심한 경쟁으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황폐화 되는 모습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조합원동지 여러분! 이제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KT노조 제 10대 집행부는 중앙, 지방, 지부의 강력한 연대와 소통을 통하여 조합원 동지들의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초석이 되고,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 거듭 태어나 우리 삶의 터전이자 우리 가족 희망인 KT를 지켜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로 뛰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김구현 위원장 첫 현장순회지로 제주 찾아가



김구현 위원장은 1월 8일(목)~9일(금) 이틀 동안 제주에서 첫 번째 현장순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제주지방법부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10대 집행부의 힘찬 각오를 밝혔다. 김구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분부를 순회하며 현장과 함께하는 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할 예정이다.

김구현 위원장 신입사원 특강 실시

2009년도 신입조합원, 노동정책부터 복지제도까지 높은 관심 보여

김구현 위원장은 1월 19일(월) 오전 10시 원주리더십아카데미에서 87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신입사원교육은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해 신입사원 교육시 노동조합에 2시간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김구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방식과 현황 등을 소개하며 노동조합의 12개 지방본부, 398개 지부, 그리고 중앙본부의 각 실·처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

합의 역사와 제도, 근로조건 개선 등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 삼급단체인 민주노총과 IT연맹에 대해 소개하고, 활발한 국제통신연대 활동이 노동 및 통신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각 실·처장으로부터 ▲KT노동조합의 방향 및 정체 ▲KT복지제도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신입사원들은 정책부터 현안복지까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불이익 없어야

제1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 개최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질서를 무시하고, 달라진 조직의 틀을 무작정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와 지방본부위원장들은 지역분부를 폐지하고 18개 마케팅단, 18개법인사업단, 6개 네트워크운영단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사측의 발표에 대해 "그간 지역본부에 대해 아쉬운 의견이 나왔던 것은 사측이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이종관리를 자행했기 때문이지, 이를 18개로 쪼개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반문했다.

“조합원 근로조건 저하시 걱정 대응하겠다”

하지만 중앙상무집행위원회와 지방본부위원장들은 매출정체가 7년 이상 지속되고 있고 KTF와의 합병, 통방융합 등을 앞두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데 동의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고객지향의 조직, 조합원의 수평이동"이라는 조직개편의 큰 틀은 수용하되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조합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분사나 인력구조조정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조합원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서나 협의안 필요 ▲승진 등 인력이동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 ▲조직개편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 ▲수정·보완의 유연성을 명시할 것 ▲상생 파트너인 노동조합의 권제를 존중하고, 창구와 역할을 정확히 표기할 것 등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밖에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서는 지부대회 및 지방본부대의원대회 일정과 분회의 신설 및 승격에 관한 건, 그리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어졌다. 지부대회는 규약에 의거해 2월 15일까지 진행하기로 했고 지부대회 공고 이전에 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한번 더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방본부대의원대회는 2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지방본부별로 진행한다.

또한 주요행사일정 보고와 각실처별 현안 보고가 진행됐다. 사무처는 중앙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정책실은 매달 1~2회씩 직접 지부로 내려가는 '이동정책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실은 중앙상집 역량강화교육 및 신입조합원간부교육 등 교육사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1월 12일(월)~13일(화)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09년 제1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사측으로부터 조직개편안을 보고받고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장장 18시간의 릴레이 회의를 마친 김구현 위원장은 "KTF와의 합병, 통방융합을 앞둔 시점에서 고객지향적 조직개편의 큰 틀은 수용하되 이는 어디까지나 구성원의 수평이동에 동의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저하나 불이익은 철저히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박2일 간의 강도높은 릴레이 회의

노동조합 중앙본부와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은 먼저 10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측이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때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위낙 빠르게 진행된 사안이라 과정상 여유가 없었다"며 사과를 표시했다. 이어 "기존 KT조직 기획부서가 너무 크고 관리와 통제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향후 추진될 KTF와의 합병시 구조적 변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2개 지역본부 폐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18개 지역으로 확대해 마케팅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해 달라"고 부탁했다.

“찾은 조직개편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해야”

지방본부위원장들은 "2년 단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혼란과 고통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어 "연연히 규약·규정에 의해

“현장 안정화 위해 최선 다하자” 결의

제1차 전국 조직국장회의 개최



노동조합은 1월 20일(화) 오후 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12개 지방본부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제1차 전국조직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노동조합 10대 집행부의 현안 및 현장에로서 항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변동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조속히 현장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다.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선언

KT노동조합 간부 일동은 김구현 위원장 취임과 10대 집행부 출범을 맞아 3만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10대 집행부가 조합원의 신뢰 속에 더욱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운동의 일대혁신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 일동은 조합원의 요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봉사하는 집행부, 서비스하는 집행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 일동은 조합원들과의 평등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항상 열려있고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 일동은 '조합원을 위해 배운다'는 신념으로 전문성을 갖춘 집행부, 공부하는 집행부가 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 일동은 통근 단결로 하나되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조합간부 일동은 투명회계와 열린 행정, 신속한 소통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명한 집행부를 만들 것을 선언한다.

2009년 1월 6일

KT노동조합 10대 집행부 일동

“참기름 같은 노동조합이 돼 주세요”

“부모님처럼 지부장님을 직접 찾아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송편 사이사이에 묻힌 참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기름이 있어야 송편들이 서로 붙지 않고, 참기름의 특유한 향기 때문에 좋은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3일(금), 2009년 신입사원 교육을 마친 87명의 신입조합원들의 얼굴은 빛났다. 희망의 기운이 찰찰 넘치는 신입 조합원들을 통해 노동조합에 바라는 점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노동조합 교육을 받았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성우: 사실 전에는 노조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노동조합이 KT노사간 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신입사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복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훈: 노동조합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시는 소중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노동조합에 대해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태훈: 신문이나 방송에서 접할 때는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면이 많아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직접 들어보고 느껴보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필요할 때 앞장서서 입장을 대변해주고 노력해주는 꼭 필요하고 고마운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희: 노동조합은 송편 사이사이에 묻힌 참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기름이 있어야 송편들이 붙지 않고, 참기름의 특유한 향기 때문에 좋은 맛이 난다고 생

각합니다. 이처럼 회사 내의 많은 목소리들이 올라올 텐데, 그 목소리들이 따로따로 분산된 목소리가 아닌 긍정적이고 하나된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지부장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성우: 제가 신입사원이라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지부장님을 직접 찾아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수연: 처음으로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과 많은 경험들이 제 인생에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부장님도 마찬가지로, 제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가 많을 텐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인으로서 포부를 밝혀 주세요

이성우: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성장하는 인제가 되어 KT를 All New KT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태훈: KT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나게 일할 것이고, 그 신명나는 힘을 고객들과 또, 많은 직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KT인이 되고 싶습니다.

최민희: 저는 KT의 얼굴이 되는 최고의 컨설턴트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의 미소로 고객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멋진 KT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수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감동과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으로서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왼쪽부터 이성우(1982년생, 감북지방법부), 이태훈(1983년생, 서부지방법부), 최민희(1985년생, 충주지방법부), 김수연(1986년생, 강원지방법부)